

A person wearing a blue robe is holding a white lamb. The background shows a misty mountain landscape with green hills and a large rock formation. The text '평안' is at the top, and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해' is at the bottom.

평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한 평화

*그 때에 하늘 아래 모든 왕국의 주권과 권능과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모든 통치자들은
그분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다니엘 7:27*

역사의 페이지들은 전쟁의 피로 물들어 있다. 국가들 간의 분쟁은 거의 예외 없이 전장에서 해결되어 왔다. 선지자들과 현자들은 이 무자비하고 무의미한 관행이 중단되고, 지상의 모든 민족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건전하고 의로운 방식을 채택하게 될 날을 예견해 왔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며 그러한 시대를 예언했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공정하고 의로운 법을 강제로 시행할 세계 정부나 통치권이 수립됨으로써 그 법들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 보편적이고 영원한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정부 아래 도래할 이 평화의 시기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은, 약속의 왕국이 예언에 부여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조직되고 강력하게 무장된, 문자 그대로의 강력한 정부일 것이므로 신성한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성경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진정한 세계 정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왕국과 그 안에서 최고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선지자는 “그의 통치와 평화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6,7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장차 올 세계 정부는 성경의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신성한 권능으로 다스리는 통치를 찬양하며 예언하고 묘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최초의 언급 중 하나는 임종 시에 “유다는 사자의 새끼라. 내 아들이, 네가 먹이를 흠쳐 올라왔도다. 그가 웅크리고 엎드려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울 수 있으랴? “실로가 올 때까지 지팡이는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권세는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백성들이 그에게로 모이리라.” 창세기 49:9,10

이 예언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에 있을 때 선포되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웅크린 사자는 통치와 통치권을 상징하는 왕실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를 “엎드린 사자”로 묘사한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이 왕족 지파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 곧 메시아이자 왕이 될 분이 나오실 것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차 오실 이 왕에게 “평화의 왕”을 뜻하는 “실로”라는 칭호를 예언적으로 부여했습니다. “백성들이 실로에게로 모일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단순히 여호와께서 보내실 이 통치자가 ‘평화의 왕’으로서 열방에 평화를 가져올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위대한 왕의 탄생과 궁극적인 통치자로서의 높임을 예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어깨에 통치권이 놓일 것이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사야 9:6). 이후 예언에서 이사야는 이 오실 지상의 통치자를 여호와의 “팔”이라 칭하며, 이 “거룩한 팔”이 모든 민족의 눈앞에

드러날 것이며, “땅 끝”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2:10

메시아 왕국의 보편성에 관해 다윗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끝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모든 민족의 족속이 주님 앞에서 경배할 것입니다. 왕국은 주님(여호와)의 것이요, 주님은 열방 가운데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2:27, 28). 다윗은 또한 여호와의 왕국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여, 주의 모든 피조물이 주를 찬양할 것이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축복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왕국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전하리니, 이는 인자들로 하여금 주의 위대한 행적과 주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주의 통치는 대대로 계속되리이다.” (시편 145:10-13)

다니엘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유럽에서 권력을 잡았던 고대 로마 제국의 여러 분파를 다스리던 통치자들에 관한 예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왕들이 있는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나라는 다른 민족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고, 이 모든 나라를 부수고 삼키며, 영원히 서리라.” 다니엘서 2:44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세상을 다스릴 왕국, 즉 통치에 관해 구약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 중 극히 일부만을 인용했습니다. 신약성경도 동일한 위로가 되는 왕국이라는 주제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는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주 그리스도이시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가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도다.”라고 했다(누가복음 2:10, 11, 14). 천사는 또한 약속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소식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와 왕, 그리고 그분이 세우실 왕국에 대한 언급들은 단순히 예언의 성격을 띠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구약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경은 왕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분이 이제 태어나셨다고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의 첫 표현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마지막인 세례 요한도 성취된 예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했습니다(마태복음 3:2). 선지자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왕국에는 왕이 있어야 하며, 이제 하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의 위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17). 이 본문의 더 직역적인 해석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하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국의 왕이 오셨으며 “가까이” 계시다,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7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었다. 특히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더욱 그러했다. 그들은 많은 이들이 예수를 이 나라에서 다스릴 약속된 왕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주석 번역: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또한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주석: ‘너희 가운데’).” 누가복음 17:20,21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의, 혹은 전혀 믿지 않았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카이사르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거대한 군대의 지원 없이는 누구도 이런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자신이 왕이 되실 그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정복자 통치자가 보여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것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영광을 동반하여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왕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신 예수께서는, 그리스어 원문의 정확한 번역에 따르면, 하늘의 왕권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더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이는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대담한 주장이었지만, 그들 중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훌륭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부실한 번역은 천국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해 큰 혼란을 초래했다. 어떤 번역본에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인류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줄, 문자 그대로의 전 지구적 정부를 지상에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잘못된 번역된 구절을 빌미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성경의 증언이 단지 산상수훈에 담긴 것과 같은 예수님의 도덕적·윤리적 가르침의 영향에 순종하는 개인들이 얻는 건전하고 경건한 마음과 정신의 상태를 가리킬 뿐이라고 증명하려 애써왔다. 그들은 예언된 그리스도 왕국의 “확장”이, 바로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 견해의 부조리함은 문제의 ‘ ’라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임을 고려하면 즉시 명백해집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 겉은 희게 칠한 무덤, 마귀의 자식이라고 한 번 이상 부르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바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된 왕국의 왕이 바로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면, 그 생각은 분명해지며 이 주제에 관한 성경의 전반적인 증언과도 일치하게 된다.

겉보기에 타락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는, 창조주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구체적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믿음을 두기가 어려워 보인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들의 이러한 믿음의 부족은 모든 시대를 통해 드러나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노력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상상해 왔습니다. 즉, 그 약속은 단지

하나님의 인간 종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열정을 다해 이루려 노력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처형당하신 후, 비록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의해 가시적이고 문자적인 왕국이 세워졌다는 증거 없이 수세기가 지나가자, 성경의 왕국 약속이 단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비뚤어진 생각들이 생겨났다. 대다수의 자칭 기독교인들은 결국 세속 정부와 연합했고, 그들의 불경한 연합을 ‘기독교 세계()’ 또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불렀다. 특히 이 시대의 말년에 이르러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단지 기독교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로운 영향력이나 거룩한 충동일 뿐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였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예수님이 원수들에 의해 빌라도 앞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그분께 제기한 혐의는 그분이 왕이라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한 평화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유죄가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인정하셨으나, “내 나라는 이 세상(그리스어 ‘코스모스’, 사회 질서)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서 온 것이 아니니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36, 37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만약 그렇다면 그의 종들이 싸웠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실행되며 그분의 왕국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모든 군사 작전에 대해 신성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밝히신 이 행동 원칙에 따르면, 수세기 동안 벌어진 소위 ‘성전’이라 불리는 모든 전쟁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경스럽고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지 못한 것이었다.

게다가, 예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는

“크리스텐덤(Christendom)”이라 불리는 인간의 문명 개념이 잘못된 명칭이었으며, 실상 그리스도의 진정한 왕국을 모방한 가짜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더 나은 세상을 세우려는 교묘한 인간적 노력 중 어느 하나에 성경의 왕국 약속을 교묘하게 적용해 온 온갖 철학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한 신성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반하는 것이었다.

성실을 다하고 경건한 성경 연구자들이 이러한 인간적 철학에 빠져들거나 그들에 의해 오도되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아무도 현 시대에 자신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자신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불과 며칠 전, 그분은 제자들에게 동일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한 비유를 들려주셨다. 이 비유는 왕국을 받아오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났다가 돌아오기로 한 어떤 귀족(예수를 상징함)에 관한 것이었다. 비유의 서두에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그의 왕국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누가복음 19:11, 12

제자들의 소망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위대한 왕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약속된 그 왕국, 즉 온 땅을 아우르고 모든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줄 그 “통치”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놀랍고 강력한 통치 체제를 즉시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어떤 귀족”에 관한 비유가 드러내 주었듯이, 이 점에 있어서는 그들이 틀렸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이러한 잘못된 관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왕국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들의 제한된 시각에서 볼 때 이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반드시 그들의 생애 내에 세워져야 함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왕국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작은 양

떼여. 너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어 너희에게 왕국을 주시려 함이니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누가복음 12:32

사도들은 예수님의 왕국 통치에 그분과 함께 참여하게 될 전망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으며, 서로之间에 이에 대해 많은 논의를 나누었다. 야고보와 요한은 특히 왕국 안에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기를 간절히 원하여,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께 그들 중 한 사람은 왕국에서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한 사람은 왼편에 앉을 수 있는지 여쭙어 보게 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왕국에서 자신과 함께할 수 없거나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셨을 뿐입니다. 그분은 “내가 마실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그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였습니다. 마태복음 20:20-22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과연 내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나, 내 우편 과 좌편에 앉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 (마태복음 20:23). 이처럼 예수께서는 이 두 사랑하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왕국 내 특정 지위를 약속하지는 않으셨고, 그러한 임명을 할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설명하셨으나, 그들이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합당함을 증명한다면 왕국의 통치권을 그분과 함께 나눌 것이라는 그들의 이해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능력”이 있거나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시 그들이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그분의 “세례”를 받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는지는 의문이다. 나중에 신약성경에서 밝혀졌듯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요청하고 계셨다. 그들이 이를 이해했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왕국의 영광 속에 그분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며, 이는

다가올 시대의 끝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11:24; 마태복음 13:39

예수님의 “잔”은 고난과 죽음의 잔이었으며, 그분은 그 잔을 끝까지 충실히 비우셨습니다. 그분의 “세례”는 죽음의 세례였으며, 세례 요한이 물에 담가 준 세례는 단지 그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곧 그분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임을”이라고 썼습니다(로마서 6:3). 성경에서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자기 희생의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초청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제자도의 조건과 함께, 그 조건들에 충실한 자들은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은 참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왕 노릇을 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2:11, 12). 또 다른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8:17).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니, 이는 나도 이겼고 내 아버지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3:21).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10). 그리고 이 신실한 자들에게는 “첫 부활” 때 죽음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살아 다스릴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4,6

성령으로 난 자

요한복음 3장 1-13절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배우기 위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니고데모에게 매우 이상하게 들렸고, 그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출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에게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바람과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즉, 강력하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후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제 그분과 함께 왕국의 통치권을 나눌 자들은 그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먼저 본성의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육신, 즉 인성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51). 바로 이 인간 생명의 희생이 인류 세계에 구속을 제공했으며,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에 모든 이가 생명을 되찾을 기회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히브리서 2:9; 디모데전서 2:3-6). 그리고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신성한 존재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4; 마태복음 28:18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살며 통치하게 될 자들도, 인간적인 본성에서 신성한 본성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이 주어졌으니, 이는 우리가 이를 통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4).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에 관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러움이 없으며 시들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시고, 하늘에 예비해 두신 생명의 소망을 따라 우리를 다시 나게 하셨다(주석: 우리를 위해)”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3,4

이와 같은 약속들은 오해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서 지낼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늘의 약속들은 오직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 곧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 희생적인 죽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24).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희생하라는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된 그 영광스러운 왕국, 즉 땅에 평화를 세우고 그의로운 법을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건강과 기쁨, 영생을 제공할 그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통치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라는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천상의 영광으로의 승영이 바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난다”고 말씀하신 뜻이다(요한복음 3:5, 6). 주님의 모든 참된 제자는 이 생애에서 이미 이 천상의 소망을 품고 태어나지만, 영으로 태어나는 일은 부활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는 성령으로 난 자들이 바람과 같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강력하다는 예수님의 설명과 일치한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현 시대에 충실함을 입증한 이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 왕국의 영적 단계를 구성할 것입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왕국의 자녀들”이라 부르시며, 그들이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25-30, 36-43

왕국의 “열쇠”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리하여 그분의 왕국에서 공동 상속자가 될 자격을 얻으라는 초대는 복음을 통해 전해집니다. 복음은 예수를 통한 구속의 기쁜 소식과, 그분의 왕국의 기관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질 생명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누구든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마태복음 16:24). 그러나 희생의 좁은

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인 오순절이 되어서야 비로소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공식적으로 열어준 이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19). 이는 유대인 신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이방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한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이는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인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에 왕국이 세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의 선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왕국에서 다스릴 기회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왕국 내 이 높은 지위에 이르는 길은 험난합니다. 바울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22

하나님께서 왕국 안에서 이 높은 지위에 부르신 이들은, 비록 그들에게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이 세상의 위대하거나, 강하거나, 귀한 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명예와 권위의 위치에서 볼 때, “좁은 길”의 대가가 너무 크다고 여겨질 뿐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 곧 믿음으로 부요한 자들을 택하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자로 삼지 아니하셨습니까?” (야고보서 2:5).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8:3; 마가복음 10:14, 15). 예수님께서 여기서 천국이 아기들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세레 요한

예수께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세레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으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1:11). 만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전통적인 신학이 가르치는 대로 지옥의 불길에서 벗어나는 수단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기이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왕국에 대해 이보다 더 나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리고 다른 수많은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결국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축복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통치의 영적 또는 천상의 단계를 나타내신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왕국의 천상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였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 (누가복음 16:16). 시나이 산에서 주신 율법과 그에 대한 순종에 대한 상과 관련하여,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목소리를 진실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5,6). 민족 전체로는 이 약속된 ‘제사장 나라’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다른 신실한 이들은 개인으로서 그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실로, 옛 조상들은

비록 기록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으나, 율법이 선포한 계명들에 충실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고대의 의인들”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상의 소망을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망은 지상에서 인간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 중 많은 이들을 열거하며, 그들이 의를 위해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더 나은 부활”을 믿으며 인내하고 죽었다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35, 39-40). 그 더 나은 부활은 인간의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며, 백성들 가운데서 교사이자 지도자로서의 지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선지자들의 마지막인 세례 요한을 포함하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고, 너희는 밖으로 내쫓길 때,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앓을 것이다.” 마태복음의 기록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앓을 것이라고 말한다. 마태는 또한 “쫓겨난 자들”을 “나라의 자녀들”로 지칭한다. 누가복음 13:28,29; 마태복음 8:11,12

“왕국의 자녀들”, 즉 율법에 대한 충실함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자격을 갖추 수 있었던 이들은, 죽은 자가운데서 부활했을 때 자신들이 이 영예로운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실망할 것이다. 그들의 실망은 “울며 이를 갈다”라는 표현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그 지위를 차지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인 옛 성도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당시 지상의 일을 주관하게 될 메시아 왕국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들에게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왕국의 지상 단계가 될 것입니다. 시편 45편 16절은 그들이 “온 땅의 방백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왕국의 천상 단계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겠지만, 그는 천상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자기 희생의 발자취를

따라 신실하게 고난받고 죽은 이들을 대변할 이 지상의 “방백들”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의 조직적 구성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양쪽 단계에 속한 그 왕국의 구성원들은 미리 시험을 받고 훈련을 거친 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 왕국에서 통치자와 교사로서의 자리를 맡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으며, 현 시대 내내 그분의 공동 상속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일을 감독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들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선한 목자이자, 조연자, 그리고 인도자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시며, 그들의 머리이셨습니다.

그의 공동 상속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일이 완료되고,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신성한 본성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들의 인간 대표자들인 “통치자들”의 “더 나은 부활”이 올 것이며, 오랫동안 약속된 왕국의 이 두 단계가 조화롭고 영광스럽게 함께 기능하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왕국에는 영적인 “종들”로 이루어진 “큰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보좌 “앞”에 있을 것이며, 보좌 “위에” 있거나 왕국의 통치자가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비록 성경이 이들이 어떻게 섬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겉보기에 그들은 왕국의 하늘 단계와 땅 단계 사이의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큰 무리”는 요한계시록 7장 9, 10, 13-17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조직된 “왕국”, 즉 정부일까요! 미가 4:1-4에서는 이것이 상징적으로 “여호와의 집 산”으로 묘사됩니다. 산은 왕국의 상징이며, 집은 하나님의 통치 가문, 즉 통치 가문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에서 왕국의 두 단계는 영적인 “시온”과 지상적인 “예루살렘”으로 상징됩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날들”에 “주님의 집 산이 모든 산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며, ...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유사한 예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며, 많은 백성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할 것이니, 이는 시온(그리스도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에서 율법이, 예루살렘(고대의 의인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미가 4:3은 이어서, “그분,” 곧 주님, 위대한 왕이자 재판장이신 분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멀리 있는 강대국들을 꾸짖으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인간의 일들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할 것이며, 심지어 처음에는 그의로운 통치에 무릎을 꿇지 않는 강대국들을 “책망”하기까지 할 것임이 얼마나 분명한가. 이와 같은 예언들을, 하나님의 왕국이 단지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의로운 영에 불과하다는 그릇된 이론과 조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왕국 통치 아래 주님의 길을 배우고,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책망”이나 징계를 받음으로써, 열방이 “칼을 낫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며, 나라가 나라를 향해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각자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미가 4:4

왕국의 백성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적인 단계와 지상적인 단계를 모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치자와 통치받는 자, 즉 백성들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이 구별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왕국에서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말씀은 왕국의 통치적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며, 즉 그들이 왕국에서 그와 함께 “왕이요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10; 요한계시록 20:4, 6).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청했고,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네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많은 번역본에서 쉼표 위치가 잘못되어 있음). (누가복음 23:43). 이는 그 강도가 왕국의 백성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분의 왕국이 온 땅에 걸쳐 낙원의 상태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여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법은 왕국을 통해 다시 확립될 것이며, 낙원은 회복될 것입니다. 온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아지고, 회복되고 온전해진 인류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들은 왕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행복한 백성이 될까요!

예언자 이사야는 다시금 ‘산’을 왕국의 상징으로 삼아, 이 산에서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삼키시며,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25:6-9). 죽은 자들은 죽음에서 깨어나 왕국의 생명을 주는 축복을 누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곧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그 놀라운 15장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먼저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다스릴 자들의 부활을 묘사하며, 이들이 불멸의 지위에 높이 올려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니, ‘사망이 승리에

삼켜지리라' . 오 사망아, 네 독침은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네 승리는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54,55

이는 왕국의 사역에 포함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놓일 때까지 통치하실 것이며, “마지막으로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라고 설명합니다(고린도전서 15:25-26). 이 영광스러운 왕국의 사역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본문에 따르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7:27). 또한 요한계시록 11:15에 예언된 왕국이기도 한데, 거기서 우리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가 영원토록 다스리시리라”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왕국을 준비하는 데 수천 년이 소요되지만, 마침내 왕국이 세워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왕국의 권세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큰 환난의 때”에 세상에 처음 드러나며, “이 세상의 왕국들”을 멸망시킵니다. (다니엘 12:1; 마태복음 24:3, 21, 22; 요한계시록 2:26, 27). 그러나 요한계시록 11:18이 밝히듯이, 그 이상으로 이 왕국의

수립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시기를 알리는 표징이 될 것이며, 그때 이 시대의 “성도들”은 왕국의 영적 단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도록 높여질 것이며, 옛 선지자들은 “온 땅의 통치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온 세상이 빛을 받게 될 것이며,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예언에서 “땅을 멸하는 자들”로 묘사된, 고의로 하나님과 의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백성 중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사도행전 3:23

그때에 왕국의 사역이 완성될 것이며,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언한 대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24-28). 이처럼 왕국의 역사하심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10)가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진 그 어떤 기도도 이보다 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응답을 받은 적은 없을 것입니다!